

#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절차 마련

### 전국시도의회의장·운영위원장들, 연석회의 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은 조례로 결정하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은 28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각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TF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후속 입법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단일 안과 의회 직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 등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 범위는 각 지방의회의 조

건을 감안 조례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인사 적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와 집행기구,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의 독립 기준인 건비 신설과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학에 관련 지원조치를 의무 사항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

도 협의했다

이밖에 의회 직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선발시험 위탁 근거 마련, 기초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직급 면제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건의안을 마련했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행안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후속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은 28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전북 미래·전략산업 찾는 것에 주목”

### 민주 전북도당, 대선공약개발특위 토론회 “차기 정부 5년 안에 실현 가능토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청)은 28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이환주 남원시장,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등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우선적으로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며 “세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전북을 대표하는 공약으로 전북의 미래산업과 전략산업을 찾는 것에 주목했으면 한다. 또 위원회를 통해 개발되는 대선공약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공약들이 다음 정부 5년 안에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개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약과 정책을 미래 전략으로 만들어 내는 데 의미를 두고 우리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당 제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는 전북 대표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9월 중 공약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민주 김윤덕 의원

#### 민원·정책의 날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사무소에서 전주시갑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좌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 민원·정책의 날”을 갖고 지역구민의 민원 해결과 함께 각종 정책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19로 방역수칙에 따라, 시간 대별로 인원수 등을 제한하면서 진행된 이번 ‘민원·정책의 날’에서는 2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특히 전주시의 협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민원 ▲지역구 내 빈집 활용 제안 ▲한옥마을 건물 개선 의견 ▲지역구 내 노후 아파트 수리 지원 ▲노인 복지서비스 개선 제안 등에 대한 지역구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계속해서 소통 공간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윤석열 와 달라”

김경민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제당의 깃발을 들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은 민생당으로 와 달라”고 말했다

## 정세균·이광재, 내달 5일까지 단일화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선후보 예비경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재창출의 소명으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당성을 계승해 민주당부 4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령의 성공을 염원하는 저희는 서로의 인격과 역량을 깊이 존경해왔다”고 밝혔다

이광재 측 전제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두 분은 오랫동안 깊은 신뢰관계를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했다”며 “경선 방식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포함됐다. 단점이 됐든, 결단이 됐든 여론조사 됐다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단일화 시기를 내달 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공용일선 공동행보를 통해 왜 단일화를 하려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말부터 컷오프(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데 그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상생·포용 정책에 중점”

### 문 대통령, 하반기 2차 추경 신속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경뿐 아니라 세제·금융·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촉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쿨존, 코리아세이프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줄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위기

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리 문 대통령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우리는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달라”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뉴시스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